

3월 3일 수행일기 <下> 끝

대학을 졸업할 즈음, 필자는 한 친구를 알게 되었다. 당시 그는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는 필자에게 불교를 배우고 대신 필자는 그에게서 기독교를 배우기로 하였다. 신앙에 상관없이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필자가 알고 있는 불교를 설명해 주었고, 다음으로 그가 필자에게 '마가복음'을 위주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강의를 해주었다.



김광하
경북권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상임운영위원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필자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으니, 그것은 그의 설명 중에 예수님의 역사적 현실과 사건에 대해 깊은 인식과 탐구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역사연구에 의하여, 갈릴리라는 곳은 예루살렘과는 달리 가난한 이, 과부, 소작인들이 주로 살고 있던 곳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연구에 의해, 왜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신학생 친구의 가르침은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필자의 사색과 수행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보상을 바라지 않는 봉사와, 또 보상에 대한 욕망을 참아내는 인욕을 통

대학시절 친구와 상대종교 배우기 인욕·무주상보시로 사회봉사

후 권력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가난하고 핍박받는 이들이 살고있는 갈릴리에 가셨는지 그 의미가 분명해졌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며, 문득 필자는 부처님이 사시던 시대와 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반문하게 되었다. 부처님은 4성계 등을 통하여 세상의 고통을 말씀하시고 또 죽이지 말고, 빼앗지 말고, 음란하지 말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불자로서 부처님의 출가 전후의 세상과 삶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가르침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물음이 앞서지 않을 때, 수행은 현실과 유리되고 결국 수행을 위한 이론과 방법만 남게되기 때문이다. 필자에게 불교공부 속에서 역

해 온다는 놀라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현실과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경전을 읽으면서, 필자는 경전 속에 나오는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이 실천적인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 불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회참여활동은 바로 욕망에 대한 성숙한 성찰을 기본으로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행복을 비는 마음,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욕망을 참아내는 성숙함. 이런 수행을 통하여 불자만이 해 낼 수 있는 사회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회는 이금현 경원선 부회장은 경원선 젊은 간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속에서도 항상 불교적 수행을 일깨워 주시는 불자입니다. 지금은 서울 미아리에 있는 자비의 집에서 주도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고침 지난해, 무위당 '장 일순' 선생은 '이원세' 선생으로 바로잡습니다.



◁직장 일을 마치고 금강경독송회 서울 성북동 법당을 찾은 젊은 불자들이 <금강경>을 읽으며 '마음바치기 수행'에 열중하고 있다.

"미륵존여래불, 미륵존여래불, 미륵존여래불..."

9월 26일 저녁 7시 서울 성북동 금강경독송회 서울법당에서는 젊은 불자들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매일 셋째 금요일에 열리는 청년법회 시간이다.

회사 일을 마치고 법당을 찾는 불자 20여명이, <금강경> 독송에 이어 '미륵존여래불'을 염송한다. 미륵존여래불은 석가모니부처에게 다음 생애에 부처가 될 것이라 승계를 받은 이로, 이 미륵존여래불에게 모든 번뇌를 바치는 것이 금강경독송회의 독특한 수행법이다. 눈으로 마음으로 '미륵존여래불'을 염하여 자신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바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매일 <금강경>을 7번 독송하고 시시각각 치미는 번뇌와 망상을 미륵존여래불에게 바치는 것. 이것이 금강경독송회의 핵심 수행법이다. 이 마음 바치는 법이야말로, 누구나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자기 삶을 뜻한 대로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금강경독송회는 서울, 포항,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마산, 원주, 대전, 충주, 경주 등 국내 11개 지역과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애크랜드, 캐나다 토론토 등 해외 5개 지역에 법당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법회는 서울 법당 법사인 류종민

'번뇌·업보' 모두 부처님께 바쳐라

금강경 7번독송·미륵존여래불 염송 국내11·해외5개 지역에 법당 운영

교수(중앙대예대대학장)의 지도로 <금강경> 1독과 미륵존여래불 마음바치기, 그리고 금강경 강좌로 진행된다. 오늘은 <금강경> 제11분 '무위복승분'을 공부할 차례. 류교수는 강의에 앞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밝아져서, 그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고 부처님 시봉 열심히 하시길 기원합니다"는 발언문으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한곳에 집중시킨다.

금강경독송회는 동국대 총장을 역임한 고 백성욱(1897-1981) 박사에 의해 시작됐다. 백 박사는 <금강경>읽기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고, 이 수행법을 현재 금강경독송회의 지도법사인 김재용 법사에 계 전수했다고 한다.

마음바치기 수행은, '아무 힘도 없는 우리가 마음 깊숙이 숨어 있다가 올라오는 거센 업보와 번뇌를 끊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공부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의 고통, 슬픔, 불안 등 모든 문제들이 바로 내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된다. 근심 걱정들은 나의 업장의 결과이며, 또한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 스스로 정진하고 깨달아 실천함으로써 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것이다.

불치병으로 더 이상 목표도 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다가 <금강경>독송으로 병을 극복하고 새 생명을 얻은 이에서부터, 동물이든 식물이든 <금강경> 독송하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만물이 밝은 심성 갖게 된다는 믿음으로, 매일 베란다에 찾아오는 까치에게까지 금강경을 들려주는 이에 이르기까지 1만여명의 회원들이 <금강경>독송과 마음바치기 수행을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ee@buddhania.com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금강경독송회 마음바치기

"새벽·잠들기전 독경하면 쌓인 업장 자연히 소멸"

금강경독송회 류종민법사



"<금강경> 자체가 바치는 경입니다. 제3분 대승정중분에서 바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금강경독송회 서울법당 법사인 류종민교수(중앙대예대대학장)는 자신있게 말한다. 20년 동안 <금강경> 독송과 마음바치기 수행을 해 온 류 교수는 매일 새벽 <금강경> 7독과 마음바치기 수행을 스스로 실천해 오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지 않고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은 업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금강경>을 읽지 않고서는 일어나 나갈 수 없고, 내 몸뚱이를 다스릴 수도 없다는 원칙을 세워 놓으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금강경>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류 교수는 "금강경"을 읽고, 미륵존여래불을 외치는 수행법은 현대의 생활에 아주 좋은 수행방법입니다. 이른 새벽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치고, 일상 생활에서도 순간 순간 바치는 수행을 하다보면 자연히 우리의 업장 소멸이 가능해 집니다"라고 말한다.

류 교수는 처음부터 7독을 행하기가 힘이 들면 하루 1독부터 시작해, 백일 단위로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또 시간이 없을 때에는 처음부터 제5분 또는 제8분까지 읽고, 제32분으로 마무리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알려준다.

수행 캘린더

- '실상관법' 수련=우곡선원 부산 해운대선원은 12일부터 26일까지 '제9기 우곡 참선교실'을 연다. 매주 화·토요일 저녁 8~10시 '실상관법'에 대해 배우고 직접 경험해 보는 기회다. (051)740-6288
- '정토신행방법론' 워크숍=한국정토학회 12일 대구 수성구 영불선원에서 '정토신행 방법론'에

대한 워크숍을 연다. '염불의 종류'(중앙승가대 태원스님), '칭명염불(대구대 박화문 교수)', '관념염불(동국대 법스님)', '염불선(동국대 보광스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열린다. (02)581-3137

■ 금강경 사경=서울 금산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법당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108참배, 금강경 사경 및 큰스님 초청 7일 정진 대법회를 연다. 사경한 금강경은 법당 앞 불탑에 봉안된다.

(02)823-9135

■ 수련회 '참선 교육'=수련회는 15일부터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서울 수송동 수련회 회관에서 일 반인을 대상으로 참선교육을 실시한다. 오전 10시, 오후 7시 일제반으로 나누어 '참선의 자세', '참선의 종류', '선종발달사', '화두의 중요성', '화두참구법' 등 참선의 실제에 대해 교육한다. (02)732-5960

■ 삼천배 철야정진=서울 능인선원은 추계 '삼천배 철야 옹매정

진' 수련을 19일, 20일에 걸쳐 실시한다. 19일 오후 8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20일 오전 3시까지 진행되는 철야정진법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참비 1만원. (02)577-5800

■ NGO명상학교=참여불교재가연대는 24일 오후 7~9시 서울 원불교 종로교당에서 '꿈다운 행복을 찾아서' 주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상 수련법 강좌를 연다. (02)744-3424

■ '산사체림 교실'=영천 은해사

는 26일 오후 5시부터 산사체림 교실을 개회한다. 새벽기도와 예불, 좌선, 포항 및 암자 순례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은해사는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도 갖는다. (054)335-3318

■ '선 수련회'=서울 길상사는 매달 네 번째 주 토요일 '주말 선수련회'를 연다. 토요일 오후 3시 입재식을 갖고 일요일 오후 3시에 회향한다. 단체 참가의 경우는 1달 전에 접수해야 한다. (02)741-4696

제30회 신라불교문화 영산대제 및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

신라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신라문화 영산대제가 부산 아시안 게임 개최 기간 중인 10월 9일 경주에서 열립니다.

대승보살계 및 영산제는 불교문화 발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범흥왕과, 신라 10대 성현의 한 분으로 추앙받으며 불국사 초대 주지를 역임했고 화엄사상을 널리 선포했던 휴운 대성사, 불국사를 창건한 신라 김대성 재상, 그리고 불국사 복원을 적극 지원했던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선원과 강원을 개설 하고 불국사를 대가람으로 발전시켜 불교문화 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한 월산성림 대종사 등 불국사와 신라불교문화를 이끌었던 5인의 위인 및 성사에 대한 경모의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 하오니 무무동참하시어 무량 복덕을 지으십시오.

- ◆ 일 시 : 불기 254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
- ◆ 장 소 : 불국사 경내 광장
- ◆ 행사내용 : 오전 10시 30분 ~ 12시 보살계 수계산림 및 설법 (3중사)
오후 1시 ~ 3시 30분 영산제 (호국영령 및 선망부모 천도제) 인화스님외 7명
오후 3시 30분 ~ 5시 예술공연 (김흥국, 나훈아, 현숙, 장미화, 12인조밴드 등)

3중사 ◆ 전계대회상 예정 ◆ 갈마아사리 성타 ◆ 교수아사리 정락

접수처 및 동참금 ◆ 보살계 : 20,000원 영가천도 10,000원
◆ 접수처 : 원주실 ☎ 054)746-9568 종무소 ☎ 054)746-9912~4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 종상

『제10회 보우제 (普雨祭) 봉행』

1. 취 지 - 한국불교총종조 허응당(虛應堂) 보우대사의 열반 437주기를 맞이하여 스님의 뜻 계승 - 정대불사 및 경관 소금씻이를 통해 불자들의 신심 고취 - 봉은불자가 한마음으로 스님의 업적과 사상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에 계승, 발전시키는 행사 - 이웃(수재민과 소년소녀 가장 등)과 함께하는 보우제
2. 주요행사 - 기간 : 2546(2002). 10. 8 - 14(1주간) - 장소 : 봉은사 경내

행사명	행사내용	일정	장소
보우제 입재식(다례제)	보우대사 추모제 및 입재식(육법공양 및 다례)	10월 8일	대웅전
보우사상 발표회	보우대사 문학관 중심-황태강 단국대 명예교수	10월 8일	대웅전
보우대사 행적전시회 및 영상법문	보우대사 행적을 전시, 보우대사의 행장을 시작으로 근세 큰스님들의 법문, 영화 상영	10월8일-10월14일	보우당
강북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및 독거노인 초청 봉은사 순례	... 이웃과 함께 ... 강북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및 강남구내 독거노인을 초청하여 봉은사 순례, 점심공양 및 코엑스 아쿠아리움 관람	10월 10일	보우당 식당
인경체험 및 판매전	판전 소장 경관을 영인하여 직접 인경을 해보고 경을 판매(한정)	10월8일-10월14일	선불당 앞
무료 차 시음회	전통 차(녹차, 보이차, 철관음, 오통차) 시음전	10월8일 / 14일	선불당 앞
직거래 장터개설	... 수재민과 소년소녀 가장 돕기 ... 응향각 울퉁품과 생협울퉁품, 직거래 작은 장터	10월6일-10월14일	진여문에서 법왕루사이
템플라이프(TEMPLE LIFE)	외국인 일일 사찰문화체험(15명)	10월 12일	진여문에서
경관 소금 씻이	경관을 소금물로 씻는 행사	10월 14일	판전 앞마당
정대불사	경관을 머리에 이고 법계도를 돌며 말리는 행사	10월 14일	대웅전 앞마당

기도하는 도량 · 공부하는 도량 · 가족과 함께하는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수도산 봉은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Tel : 종무소 02)511-6070~4 포교실 02)516-5652 Fax : 02)544-2141